

Living the Lotus 4

Buddhism in Everyday Life

2024

VOL. 223



Rissho Kosei-kai of
Bangladesh

Living the Lotus Vol.223 (April 2024)

발행: 입정교성회 국제전도부

☎ 166-8537

동경 스기나미구 와다 2-7-1 후몬메디아센터3층

Tel: 03-5341-1124 / Fax: 03-5341-1224

E-mail: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

편집 책임자: 아카가와 케이치

편집장: 미카와 사치 / 교열자: 이행자, 성숙희, 박현철

입정교성회는, 1938년 니와노닛쿄 개조님과 나가누마 묘코 협조님에 의해 창립되었으며 법화 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재가불교 교단입니다.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속에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여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현재에는 니와노 니치코 회장선생님과 함께 우리들 회원은, 불교도로서 포교 전도에 힘쓰면서 종교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국내외에서 여러 평화 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Living the Lotus-Buddhism in Everyday Life(법화경을 살아 간다-생활 속 불교)라는 타이틀에는, 매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법화경 가르침을 실천하여, 진흙탕물에 피는 아름다운 연꽃과 같이, 인생을 풍요롭고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다는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 잡지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매일매일의 생활속에서 활용하는 불교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니와노 니치코
입정교성회 회장

「진실」이란 무엇인가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 위로/고사리의 싹이 트기 시작하니/봄이 오고 있는 걸까」 - 바위 틈새로 세차게 흘러 떨어지는 폭포 물가에, 막 싹이 트기 시작한 고사리를 발견한 시키노 미코(志貴皇子/?~716년)가 쓴 ‘봄의 방문’을 기뻐하는 시입니다.

나라(奈良)시대에 만들어진 <만엽집(万葉集: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만, 후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봄이 왔구나’ 하고 들뜨는 마음이 전해지는 훌륭한 시입니다.

단지 만엽인처럼 맑은 눈으로 자연을 사랑하거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시는 우리들에게 스스로의 탁해진 마음과 부족함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옛 경전에 남겨져 있는 석존과 바라문과의 대화 중에 <진실을 지키는 것이 나의 풀베기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석존께 있어 ‘진실을 지키는 것’이 논밭을 경작하는 사람의 풀베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실’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진실’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진리’입니다. 불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자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진실을 지킨다’는 것은 진리에 따라 사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불교 사전에서 ‘진실’이란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다든가 싫다라는 감정을 섞어서 보지 않고,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실을 지킨다’는 것으로, 이

를 방해하는 번뇌라고 하는 잡초가 마음에 무성하게 자라나지 않도록 석존께서도 근행하셨다는 것을 배찰(拜察)할 수 있습니다

잡초(雜草)라는 이름의 풀은 없다

하지만 번뇌는 진보와 향상의 원동력이 되며, ‘번뇌 즉 보리(煩惱卽菩提)’ 라고 설하는 것처럼 번뇌와 보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큰 번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자각할 수 있는 힘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번뇌는 우리들을 살리고 키우는 고마운 것이 됩니다. 큰 번뇌를 지니고 있는 사람일수록 큰 마음의 전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석존께서 ‘풀베기’ 라고 표현하신 것은, 방심하면 마음 속에 생기는 번뇌라는 잡초도 너무 자라지 않도록 적당히 베어내고, 그때마다 마음의 땅에 쟁기질을 하면 그것이 마음의 폭을 넓혀 지혜를 낳는 영양이 되고, 더 한층 풍부하고 부드러운 토질(土質)의 마음 받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물 분류학자인 마키노 도미타로(牧野富太郎)씨가 ‘잡초’ 라는 말을 무심코 꺼낸 어느 기자에게 ‘이 세상에 잡초라는 풀은 없다. 어떤 풀이라도 반드시 이름이 붙어 있다’ 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잡초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덧붙이면, 앞에서 말씀드린 마음의 잡초에 비유한 번뇌 하나하나에도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뇌를 번뇌인 채로 끝낼 것인지, 마음의 성장으로 이어갈지는 우리들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올해 새해 첫날, 노토반도(能登半島)에서 막대한 피해를 낳은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지진은 재해 그 자체입니다만, 그러나 지구의 역사에 비추어 보면 현재도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연 현상의 하나입니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것도 재해를 인류의 뛰어난 지혜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재민들의 가혹한 상황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없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애도하며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진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며, 여러 가지 감정이 엇갈려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속에서, 보다 잘 살아가는 지혜와 사람들 배려하는 자비의 마음을 키워 나갑니다. 그것이 평생의 <불도정진(佛道精進)>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성』 2024년4월호



Interview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국입정교성회
최 우 기

언제부터, 무엇을 계기로 교성회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습니까?

입정교성회에는 어머니가 1989년에 입회했으며 저는 신앙 2대째입니다. 제가 중학생때 어머니와 함께 처음 도량에 참배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취직을 하고 결혼, 출산, 육아 등에 쫓기다 보니,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교성회에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8월부터 교성회에 조금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2018년 사이가 좋았던 친구 A씨와의 관계가 티격태격하기 시작했던 때부터 였습니다. 저는 A씨를 신뢰하고 있어서 제 본 마음까지 다 털어놓으며 이야기를 나눠왔었습니다만, 어느 날, 그런 A씨에게 아주 배신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충격을 받은 저는 교성회에서 제 마음을 주시하기 위해서 '범죄수행' '법회 날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A씨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간부님께 매듭을 짓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르침 덕분에 A씨를 탓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A씨의 행복을 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장 역할을 받고 계시네요. 역할은 바로



진지하게 가르침을 구하며, 범죄수행중인 최우기씨



인터뷰에 응하는 최우기씨

받으셨습니까?

2022년 8월부터 교성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때, 저는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도량에는 주말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연말부터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는)주부역할과 (교성회에서는)조장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현재, 남편과 저, 장녀, 장남 이렇게 4식구입니다. 두 아이는 모두 대학생으로 성장하여 이제는 (부모의) 케어가 그다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에 대한 걱정도 없고 가정 상황도 자연스럽게 환경이 정돈되어 역할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부처님의 주선이라고 생각하고 조장 역할을, 고분고분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언제 역할에 대한 기쁨을 느끼세요?

조장 역할을 받기 전의 저는, 도량에서 건행수행을 해도 어딘가 수동적인 저였습니다만, 2023년 8월 1일에 조장 임명장을 받고 난 후에는 능동적인 내가 되어 역할에 임할 수 있게 되어, 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발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나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려고 하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장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임하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이 마음을 사명감이라고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역할의 공덕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되도리나 인도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것, 배운 것을 가르쳐주세요.

현재, 저에게는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가 2명 있습니다. 그중 B씨는 제가 2022년 8월부터 교성회에 나오기 시작했던 무렵에 함께 오자고 권유한 친구로, 한중수행에도 참가해 주었습니다. 그 후 B씨를 입회 시켜서 감사하게도 9월에 함께 액장본존님을 교회권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친구인 C씨는 지역 베드민턴 운동 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C씨를 꼭 입회 시키고 싶다는 바람으로, C씨에게 함께 교성회에 가자고 권유하였습니다. C씨는 한번은 교성회에 와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입회를 시키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C씨를 걱정하는 마음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점점 교성회로부터 멀어져 버린



教会の式典で太鼓のお役を務める崔さん

것입니다. 지금은 C씨에게는 정말 죄송한 일이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체험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다가가 상대방 입장이 되어 이야기를 듣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연수회나 범죄수행 등을 통해서, 인상에 남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는 말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전의 저는 무심결에 ‘상대방을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는 바꿀 수 있어도 상대방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각과 생각방식, 행동을 바꾸는 노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바뀐다면 보이는 시각, 사고방식도 플러스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입정교성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많은 전통불교에서는 각 사찰의 주지스님이 독경을 하거나 설법을 하고 신자들은 절을 합니다. 그것도 아주 고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입정교성회에서는 아침 저녁에 스스로 독경을 올리고 범죄 수행과 건행수행(당번수행)에 참가하고, 입회 되도리 등 포교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수행과 활동에 스스로 참가하여 실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최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삼고 있는 리더, 간부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가장 경애하고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행자 교회장님입니다. 이행자 교회장님께서 항상 부처님의 진리에 근거하여 개조님 회장선생님의 가르침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에 힘을 쏟으시며, 동시에 우리들 회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상은 아주 크고 높습니다만, 저는 이행자 교회장님과 같은 간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바람과 구체적인 목표를 들려주세요. 2023년을 되돌아보면 작년 한 해는 교성회 활동을 하기 시작한 저를 교성회 전체, 혹은 지부 여러분들께 알리며 나라는 사람을 어필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에는 거기에 더해
서 신앙인으로서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제
가 되고 싶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로는, 아직 부족한 저입니다만, 올해는 주
임 역할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치 코치 마음치를 좀 더
챙기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섬세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
가고 싶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가르침을 실
천하기란 좀처럼 어렵습니다만, 교성회
에서 배운 것을 한 가지라도 두가지라도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인이
며 어머니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역할이 있는 사람
부처의 자식으로서의 역할

니와노 닛쿄 개조님



입정교성회에서는 ‘역할’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역할이 있는 사람이다’ ‘당신은 역할이 있네요’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 ‘역할’은 지부장이나 주임 역할자 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중요한 ‘역할’, 즉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귀의하는 법화경 가르침을 음미해보면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첫번째로 ‘방편품’에 부처님께서 ‘일대사인연’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셨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그 ‘일대사인연’이란, 모든 사람들을 불도로 들게 하여, 부처와 똑같은 경지에 인도하고 싶다는 큰 바람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은 이



미 그 부처님의 ‘일대사인연’과 직접 관계되어 있으므로, 그런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역할’에는 부처의 자식으로서, 부처님의 사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을 불도로 인도하는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 외에, 교성회에는 여러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도 범화경 가르침을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범화경 가르침의 요점을 정리해보면…

- 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구원실성의 본불’에 의해 살려져 있다.
- 二. 그러므로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평등하며, 현상으로는 여러가지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완수하는 곳에 각각의 성불이 있다.
- 三. 이 세계는 모든 존재의 공동체이며, 모든 존재가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 본연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협력이 완전하게 완수되는 곳에, 이상사회(상적광토) 건설이 달성된다.

이 세 가지를 다시 살펴보면, 어떠한 ‘역할’이라 할 지라도, 그 소중함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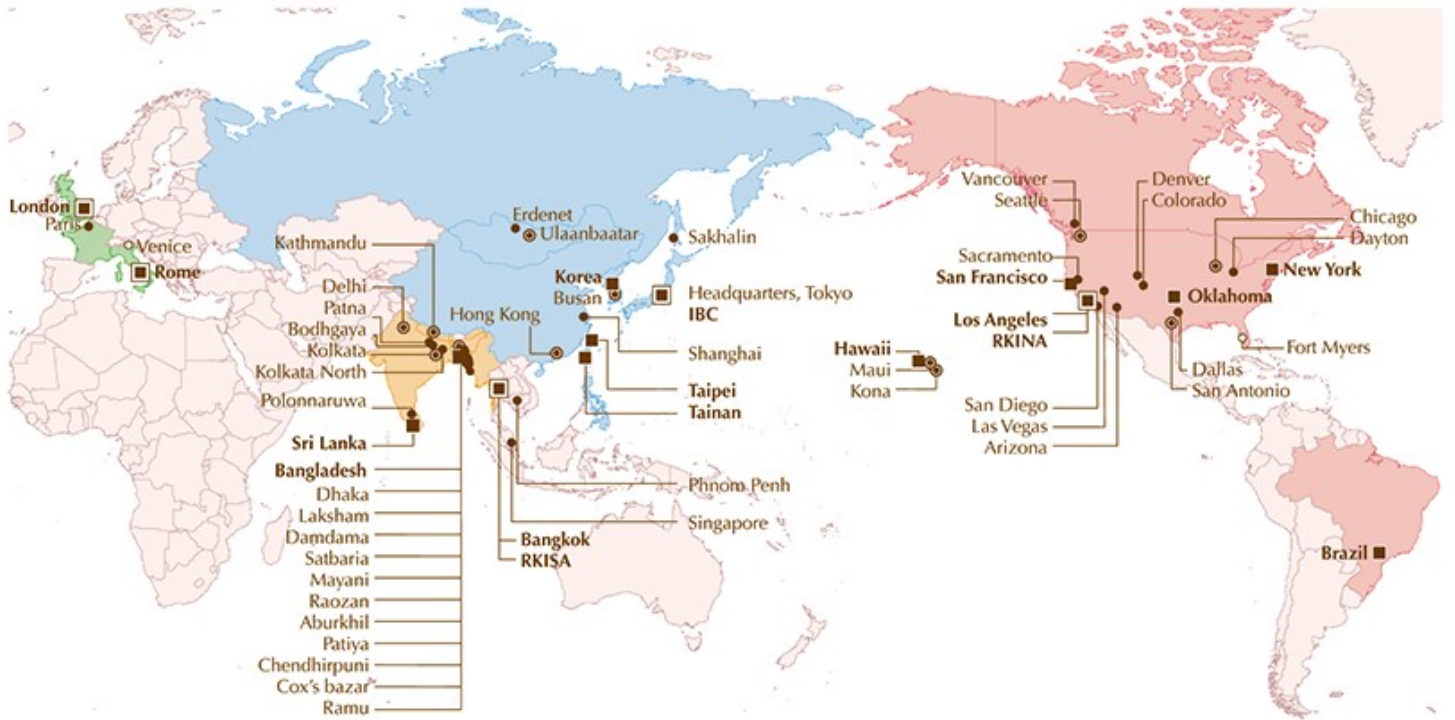


Rissho Kosei-kai International

Make Every Encounter Matter



🌸 A Global Buddhist Movement 🌸



Information about local Dharma centers



✉ We welcome comments on our newsletter Living the Lotus: living.the.lotus.rk-international@kosei-kai.or.jp